

일상 및 가정행사 공간을 통해 본 거실과 안방의 기능 - 1992년과 2002년의 자녀성년기 가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Function of the Living Room and Anbang through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Family Rituals

장상옥* 신경주**
Jang, Sang-Ock Shin, Kyung-Joo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rend of the room where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family rituals(activities of non-daily living) were performed between 1992 and 2002. Research data was collected in 1992 and 2002 from households living in Seoul that have university student by using questionnaire surveys.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package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Living room was a multi-function space for various activities: receiving guests, family communication, ironing, sewing and dining as well as a kitchen. Anbang(master bed room) is the place where the couple sleeps. Anbang's function has changed from a multi-function space to a private space. 2) Most of the families performed the majority of the family rituals in the living room and Anbang. In 1992, traditional events and birthday parties were performed in Anbang, but in 2002, the trend has changed. This would mean that with time the majority of the family rituals were held in the living room. 3) Space planning is required to meet the dwellers' use of living room and Anbang.

Keywords : Change of the Living Space, Change of the Living room function, Change of the Anbang's function.

주요어 : 생활공간의 변화, 거실기능의 변화, 안방기능의 변화

I. 서론

사회가 변하면서 인간의 가치관이 변하고, 가치관에 따라서 생활도 바뀐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서 급격한 경제성장과 동시에 IMF 라는 치명적인 경제혼란기를 동시에 경험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사회질서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사회변화기와 더불어 가정의 생활내용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가정생활의 내용이 바뀌면 이를 수용하는 주거내 공간도 바뀌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생활내용의 변화에 따른 주거 내 행위공간의 변화를 살펴보는 일은 앞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평면 계획 시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주거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정생활행위는 크게 일상 생활과 가정행사로 나누어지는데 주거공간이 이 행위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때 질적인 삶이 영위되겠다. 가정행사는 가족을 정서적으로 연결시키고 세대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므로¹⁾ 일상 생활행위보다 빈도가 적으나 중요하며, 따라서 이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일상 생활행위와 가정행사(비일상 생활행위)를 분리시켜 다룬 경우가 많고 연구의 비중이 일상 생활행위에 집중되

*정회원, Cornell University, 객원 연구원
**정회원, 한양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 교수

1) Cheal, D. (1988), The Ritualization of Family Ties, American Behavior Scientist, Vol. 31, p.638

어) 가정행사공간을 다룬 연구가 미미하다.³⁾ 또 이 두 생활행위를 모두 다룬 경우도⁴⁾ 가정행사를 종교 행사나 연중행사 등에 국한시켜 최근 사회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축하행사나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행사를 다루지 않았다. 연구의 시점도 일정 시점의 생활행위와 공간에 집중되어 시대 변화에 따른 생활변화와 공간변화를 파악하지 않았다. 주거공간은 사용연한이 긴 내구소비재로 앞으로의 생활행위와 이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예측한 주택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일상생활 및 가정행사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공간의 변화를 비교한 본 연구는 앞으로의 주거공간 계획 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가정생활행위 공간의 변화를 파악한다.
- 2)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일상 생활행위 공간의 변화를 파악한다.
- 3)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가정행사 공간의 변화를 파악한다.
- 4)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가정생활 행위 및 공간의 변화를 통하여 주택계획 시 고려 점을 찾는다.

I. 선행연구 고찰

1. 일상 생활행위

일상 생활행위는 매일 반복되는 생활로, 반드시 특

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하루를 주기로 하는 시간성을 가지는 것으로 기본 의식주와 가사노동이 여기에 속한다⁵⁾. 이러한 특성을 갖는 일상 생활행위는 크게 개인생활행위, 공동생활행위, 가사작업행위로 구분하거나 혹은 가족단란, 가족식사, 접객, 개인생활, 가사작업 등의 중요행위로 구분하기도 한다.⁶⁾ 또 이에 더하여 손님 취침과 계절별 식사까지 세분하기도 한다.⁷⁾

여러 선행연구는 일상생활행위를 주거공간 중 거실과 안방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가족단란, 식사, 접객, 부부취침, 가사작업 등으로 분류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일상 생활행위는 중요한 단란, 식사, 부부취침, 가사노동, 접객 행위를 선정하였으며, 1992년과 2002년의 두 시점에서의 이 생활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변화를 살펴본다.

2. 가정행사(비일상 생활행위)

가정행사는 반복되지 않는 생활로 특정한 절기 때 일어나며, 행위의 종류측면에서 볼 때 고정된 생활행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는 의례, 놀이, 여가 같은 행위로 휴식, 학습, 접객, 연회, 축제, 명절놀이, 관혼상제, 집안거사, 경사가 이에 속한다.⁸⁾ 이러한 가정행사는 일상생활에 비해 일어나는 시간이 짧고 규칙적이지 않지만 전통주거에서는 이 공간이 배려되어 있어⁹⁾ 이를 통하여 가정생활에서 가정행사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가정행사의 범위를 살펴보면 김계동과 이영호(1997)는 제례(제사, 추도식), 돌, 생일, 집들이, 가족의례(결혼기념일, 연말연시행사)를 연중행사와 현대적인 행사로 보았고, 정

2) 유우상, 송종석 (1987), 중소규모 아파트의 거실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7(1), 김종인 (1995), 도시 공동주거 안방의 이용행태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1), 조성희, 박수빈 (2002), 아파트 단위평면계획의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 16(6)

3) 김계동, 이영호 (1997), 현대주거에서의 의례공간 요구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7(2), 장상욱, 신경주 (2002), 중도시 거주자의 가정행사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3(6)

4) 김정규, 윤장섭, 이광노 (1987), 아파트에 있어서 안방과 거실의 기능과 배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7(2), 김수진, 이영수 (2000),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에 따른 단위평면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2호, 김진균, 김우영, 이경훈, 이용석 (2002), 아파트 공간구성유형에 따른 거주자 공간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1)

5) 김진균, 김우영, 이경훈, 이용석 (2002), 아파트 공간구성유형에 따른 거주자 공간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1), p.114

6) 김미희, 윤복자 (1992), 평면규모 30평형대 및 4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사용방식(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10), p.30, 김진균, 심우갑, 박수빈 (2002), 아파트 공간구성유형에 따른 거주자 공간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1), p.58

7) 김종인 (1995), 도시 공동주거 안방의 이용행태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1), pp.18-19

8) 김진균, 김우영, 이경훈, 이용석 (2002), 아파트 공간구성유형에 따른 거주자 공간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1), p.114

9) Bremen, J. & Martinez, D.P. (1995), Ceremony and Rituals in Japan, Routledge, p.250

준현(1998)과 윤재웅, 이미혜(2000)는 제사, 생일, 종교의식으로 구분하고, 김수진, 이영수(2000)는 의례와 제례행위 외에 성년식을 포함시켰다.

일본의 연구에서는 가정행사를 연중행사(정월, 칠석 등), 통과의례(성인의 날, 은혼식, 금혼식, 환갑, 고회 등), -날(어린이날, 어머니날, 아버지날, 경로의 날), 탄생일(부모, 부부, 자녀 생일), 축하행사(자녀입학 축하, 졸업, 퇴직, 승진, 신축축하), 서양적행사(결혼기념일,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로 비교적 세밀하게 분류한다.¹⁰⁾

한편, 서구에서는 가정행사(Family Rituals)를 생일, 기념일, 축제일, 종교 행사로 정의하고¹¹⁾ 이에 발렌타인데이,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 독립기념일 등 여러 행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중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가정행사는 생일,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부활절, 장례식 등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의례, 비일상적 생활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의는 다양한 여러 종류의 행사를 포괄하기에는 의미가 제한되므로 사전적정의(두산세계백과 대사전, 2002)에 따라 비일상적인 생활행위를 가정행사로 정의하였다. 이에 의하면 가족구성원의 탄생을 비롯하여, 성장에 따라서 거행되는 의례와 연중행사로 각 가정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행사는 가정행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행사의 범위에 탄생과 관계되는 백일, 돌, 환갑, 고회, 자녀, 부부, 부모의 생일 등을 포함시켰다. 또 연중행사는 상류계급에서 유래한 것과 서민의 생활행사가 합쳐져서 근세 이후 일반 가정행사로 된 것으로 설, 대보름, 칠석, 추석, 동지 등이 속한다고 되어 있어(두산세계백과 대사전, 2002), 이 중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설(신정, 구정), 대보름, 추석(장상옥, 신경주, 2002)을 선정하였다. 이외에 사회변화로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강조하여

거행하게 된 입학, 졸업, 결혼기념일 등의 행사가 늘고 있어 이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가정행사는 연중행사(신정, 구정, 대보름, 추석, 제사), 통과의례(백일, 돌, 환갑·고회), 탄생일(부·모생일, 부·부생일, 자녀생일), 축하행사(결혼기념일, 자녀입학, 자녀졸업, 취직, 승진, 퇴직, 상량식, 집들이), 기타행사(어린이날, 어머니날, 크리스마스)¹²⁾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III. 연구 방법

연구는 설문지(평면기입 포함)법에 의했으며, 설문지는 선행연구를¹³⁾ 기초로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 가정의 일반적 특성과 친척과의 교류정도, 주택특성, 주생활행위 공간의 특성(거실, 부엌, 식당의 결합형식, 거실, 안방, 부엌·식당 공간의 가구·식탁, 소파, 침대 소유정도와 소파의 배치 형식), 일상 생활행위와 가정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대도시 거주자의 일상적 생활행위와 가정행사를 조사하기 위해 대학생을 가진 안정기에 있는 가정의 주부와 대학생 자녀를 함께 대상으로 하였다.¹⁴⁾ 조사는 설문지와 평면도 기입조사를 병행하여 자녀가 주택평면을, 주부가 주생활행위와 일반적 특성 등을 기입토록 하였다.

조사시기는 사회변화에 따른 가정생활 내용의 변화와 함께 이에 수반된 주거내 공간 변화를 검토하

10) 宮崎祐子 (1992), 日本と韓國の都市住宅における空間構成に関する研究-行事の行われ方を中心に-. 大阪市立大學修士論文.

11) Bossard, J. H. & Boll, E. S. (1950), *Rituals in Family Livi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 159, Imber-Black E. (2002), *Family Rituals-From Research to the Consulting Room and Back Again: Comment on the Special Se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4), p.446

12) 경로의 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부활절, 석가탄신일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으나 이들 행사는 외부시설(식당, 카페, 종교기관)에서 거의 이루어져 이에 대한 공간 분석은 제외하였다.

13) 김정규, 윤장섭, 이광노 (1987), 아파트에 있어서 안방과 거실의 기능과 배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7(2), 宮崎祐子 (1992), 日本と韓國の都市住宅における空間構成に関する研究-行事の行われ方を中心に-. 大阪市立大學修士論文, Cheal, D. (1988), *The Ritualization of Family Ties*, *American Behavior Scientist*, Vol. 31

14) 가족생활주기 상 중년기 가족은 가정행사에 깊이 관여하며, 대학생 자녀의 부모는 가정행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Wolin & Bennett (1984), *Family Rituals, Family Process*, 23, p.416. 즉, 대학생 가정은 가족생활주기 상 다양한 가정행사를 경험한 단계이며 사회분위기를 리더할 계층으로 판단하였다.

고자 1992년 9월과 10년이 경과한 2002년 10월의 2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1992년은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03부(68.7%)를, 2002년은 총 145부를 배부하여 91부(62.8%)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¹⁵⁾

자료분석은 SPSS WIN7.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교차분석을 하였다.

IV. 조사 결과

1. 조사대상 가정의 특성

조사대상 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조사연도에 상관 없이 부부와 2~3인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많았으며¹⁶⁾ 50대 초반의 가장은 학력정도가 높고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가정의 소득수준은 중류이상이며¹⁷⁾ 기독교 가정이 다소 많은 특성이 있었다. 친척과의 교류는 약 70%의 가정이 3개월에 1회 이상 하고 있다<표 1>. 또한 주택 특성은 침실수가 3-4실 (1992년 92.5%, 2002년 91%)인 30~40평형대(1992년 65.6%, 2002년 67%)의 집합주택(1992년 63.1%, 2002년 64.8%)에 거주하는 가정이 다소 많았다. 따라서 이들 조사대상은 여러 측면이 유사하여 비교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표 2>.

2. 생활행위 공간의 특성 비교

공간의 특성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행위-일상, 가정행사-에 영향을 주므로 먼저 평면분석을 통하여 생활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내용은 거실과 부엌·식당의 연결형식, 식탁, 소파의 유무, 거실의 소파 배치 형식, 안방, 자녀방의 침대유무 등이다<표 2>.

(1) 거실과 부엌·식당의 결합 형식

가족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동 공간인 거실(L), 부엌(K), 식당(D)의 연결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

15) 평면기입용과 주생활행위 설문지 중 한 쪽이 누락되거나 부실 기입한 경우를 제외하여 분석 비율이 다소 낮아졌다.
 16)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전국기준으로 1990년은 핵가족 76%, 직계가족 10.2%이며, 2000년은 핵가족이 82%, 직계가족이 8%이었다. 한국의 사회지표 (1990, 2000), 통계청
 17) 1992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356,110원이며, 2002년은 2,386,947원 이었다. 인구주택 총조사(1995, 2000), 통계청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항 목	구 분	1992년	2002년
가족수	4인 이하	42(40.8)	51(56.0)
	5인	40(38.8)	29(31.9)
	6인 이상	21(20.4)	11(12.1)
	평균	4.8인	4.5인
	계	103(100)	91(100)
가족 유형	핵가족	86(84.7)	78(85.7)
	확대가족	16(15.7)	13(14.3)
	계	102(100)	91(1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1992)	12(11.8)	15(16.5)
	200이하 (2002)		
	101-200만원 (1992)	36(35.3)	26(28.5)
	201-301만원 (2002)		
	201만원 이상(1992)		
	301만원이상 (2002)	54(52.9)	50(55.0)
계	102(100)	91(100)	
남편 직업	생산직	15(14.5)	18(19.8)
	판매·서비스직	26(25.2)	22(24.2)
	사무직	39(37.9)	38(41.8)
	전문직	21(20.4)	12(13.2)
	기타	2 (2.0)	1 (2.0)
	계	103(100)	91(100)
남편 학력	고졸이하	31(30.4)	30(33.0)
	대졸	59(57.8)	48(52.4)
	대학원 이상	12(11.8)	13(14.3)
	계	102(100)	91(100)
주부 학력	고졸이하	58(56.9)	57(62.6)
	대졸	39(38.2)	32(35.2)
	대학원 이상	5(4.9)	2(2.2)
	계	102(100)	91(100)
남편연령	평균	52.2세	53.3세
	주부연령	평균	48.3세
가정 종교	기독교	36(35.0)	31(34.1)
	불교	24(23.3)	21(23.1)
	천주교	9(8.7)	10(11.0)
	무교	30(29.1)	22(24.2)
	2가지이상 종교	4(3.8)	7(7.7)
	계	102(100)	91(100)
남편 친척 교류 정도	동거	10(9.7)	4(4.4)
	1개월 1회 이상	35(34.0)	28(30.8)
	3개월 1회 이상	32(31.1)	25(27.5)
	매년 1,2회	26(25.2)	34(37.3)
	계	103(100)	91(100)
주부 친척 교류 정도	동거	8(7.8)	1(1.1)
	1개월 1회 이상	42(40.8)	40(44.0)
	3개월 1회 이상	30(29.1)	24(26.4)
	매년 1, 2회	23(22.4)	26(28.6)
	계	103(100)	91(100)

*일부항목의 누락 응답으로 사례수에 다소차 있음

표 2. 조사대상의 주택 특성 N(%)

항 목	구 분	1992년	2002년
주택 유형	단독주택	38(36.9)	32(35.2)
	집합주택	65(63.1)	59(64.8)
	계	103(100)	91(100)
주거 면적	30평 이하	17(16.7)	18(19.8)
	31-40평	44(43.1)	39(42.8)
	41-50평	23(22.5)	22(24.2)
	51평 이상	18(17.6)	12(13.2)
	계	102(100)	91(100)
침실 수	3개이하	3(56.3)	40(59.7)
	4개	34(36.2)	21(31.3)
	5개 이상	7(7.5)	6(9.0)
	계	94(100)	67(100)
거실 부엌 형식	L+DK+	77(81.9)	50(74.6)
	L+D+K	11(11.7)	7(10.4)
	LDK	5(5.3)	10(14.9)
	LD+K	1(1.1)	0(0.0)
	계	94(100)	67(100)
소파 유무	있음	75(79.8)	61(91.0)
	없음	19(20.2)	6(9.0)
	계	94(100)	67(100)
소파 배치 형태	-자형	32(42.7)	42(68.9)
	ㄴ자형	38(50.6)	16(26.2)
	ㄷ자형, 병렬형	5(6.7)	3(4.9)
	계	75(100)	61(100)
식탁 유무	있음	91(96.8)	64(95.5)
	없음	3(3.2)	3(4.5)
	계	94(100)	67(100)
안방 침대 유무	있음	28(29.8)	34(50.7)
	없음	66(70.2)	33(49.3)
	계	94(100)	67(100)
자녀방1 침대 유무	있음	66(70.2)	59(88.1)
	없음	28(29.8)	8(11.9)
	계	94(100)	67(100)
자녀방2 침대 유무	있음	50(56.2)	45(69.2)
	없음	39(43.8)	20(30.8)
	계	89(100)	65(100)

*일부 항목의 누락된 응답으로 사례수에 차이 있음

실은 분리되어 있고 부엌과 식당이 접속된 L+DK 형이 지배적이며(1992년 81.9%, 2002년 74.6%), 거실, 식당, 부엌이 모두 분리된 L+D+K형이 두 연도

모두 10% 안팎이며, 거실,부엌, 식당이 일실화된 LDK 형은 1992년은 약 5%로 적었으나 2002년은 14.9%로 많았다. 또 거실과 식당이 접속 되어있고, 부엌이 분리된 LD+K형은 1건(1992년)으로 매우 적었다.

(2) 가구 소유정도

각 공간의 생활행위에 영향을 주는 규모가 큰 가구인 소파, 식탁과 침대의 소유정도의 변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거실의 소파는 80-90%의 가정(1992년 79.8%, 2002년 91%)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년의 경우에 소파소유가 더 높았다. 또 소파의 배치형태는 1992년은 ㄴ자형(50.6%)과 -자형(42.7%) 배치가 대부분이었으며, 2002년은 -자형의 비율(68.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ㄴ자형(26.2%)이었다. 이외에 ㄷ자형과 병렬형 배치는 5% 내외로 작은 편이었다.

식탁의 소유율은 연도에 상관없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아(1992년 96.8%, 2002년 95.5%), 식사공간에는 식탁을 사용하는 입식생활이 일반적인 경향이 었다.

침대의 소유율은 공간의 사용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의 경우는 1992년에 비하여 2002년에 소유율이 증가하였다(1992년 29.8%, 2002년 50.7%). 한편, 대학생 자녀방의 경우 첫째 자녀의 침대소유율(1992년 70.2%, 2002년 88.1%)은 그 이하 자녀의 경우(1992년 56.2%, 2002년 69.2%)보다 높았다. 따라서 자녀의 침대소유정도가 증가하여 앞으로 자녀공간에서의 침대사용은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하면 조사대상의 주거평면은 L+DK 형식이 많고 식사공간에는 식탁의 사용이 일반적이며, 거실의 소파는 1992년에는 약 80% 소유에, -자형과 ㄴ자형 배치가 많고, 2002년에는 90% 이상 소유에, -자형 배치 비율이 높았다. 또 안방침대는 약 30%(1992년)에서 50%(2002년)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자녀 침대는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60-70%에서 70-90%로 증가하여 안방은 반 정도가, 자녀방은 4/5이상이 침대를 구비한 공간이다. 이러한 입식가구의 증가로 보아 거실, 부엌·식당, 침실 공간의 기능이 앞으로 보다 분명해 질 것으로 전망 된다.

3. 일상 생활행위 공간의 변화

일상 생활행위는 거실, 안방, 부엌·식당, 자녀방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행위를 중심으로 가족의 단란, 식사, 접객(접대, 숙박), 취침(부부, 자녀), 가사 행위를 조사하였으며 1992년과 2002년의 생활행위의 공간변화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단란행위는 대부분 거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2년은 74.8%, 2002년 92.3%), 그 다음이 안방 (1992년 16.5%, 2002년 6.6%), 부엌·식당(1992년 8.7%, 2002년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란행위는 1992년에 비하여 2002년에는 거의 거실에서 이루어져 안방에서의 단란행위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생활행위와 가구와의 관련에서 특히,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단란행위는 침대소유에 영향을 받으므로,¹⁸⁾ 침대 소유에 따른 안방의 단란행위를 교차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안방의 침대소유에 따른 단란행위는 2002년에 유의미한 차이($P < .05$, $X^2 = 4.383$)가 보여 안방의 침대는 공간을 개실화시켜 안방에서의 단란행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2년에는 침대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안방 침대의 소유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유추된다.

식사행위는 주로 부엌·식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2년 89.3%, 2002년 78.0%), 다음이 거실 (1992년 6.8%, 2002년 18.7%), 안방(1992년 3.9%, 2002년 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실에서의 식사행위가 2002년에 다소 보이는데 이는 LDK형의 비율 증가가 하나의 요인일 것으로 보인다.

손님접대는 거실(1992년 82.5%, 2002년 90.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방(1992년 14.6%, 2002년 2.2%), 부엌·식당(1992년 2.9%, 2002년 6.6%)의 순이었다. 또 안방에서도 이루어지던 손님접대는 1992년보다 2002년에는 거실에서 많이 이루어져 거실이 손님접대의 주요 장소로 자리잡고 있다.

부부취침은 연도에 상관없이 안방으로 나타나 안방은 부부의 개인생활 공간으로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2년에는 극히 일부(3.3%)의 대학생 자

표 3. 일상 생활행위 공간의 변화 N(%)

행사	1992년				
	거실 (마루)	안방	부엌/식당	자녀방 1, 2, 3	계
가족단란	77(74.8)	17(16.5)	9(8.7)		103(100)
가족식사	7(6.8)	4(3.9)	92(89.3)		103(100)
손님접대	85(82.5)	15(14.6)	3(2.9)		103(100)
부부취침		103(100)			103(100)
자녀취침			103(100)		103(100)
손님숙박	8(7.8)	13(12.6)		82(79.7)	103(100)
가사	54(52.4)	35(34.0)	8(7.8)	6(5.8)	103(100)
2002년					
가족단란	84(92.3)	6(6.6)	1(1.1)		91(100)
가족식사	17(18.7)	3(3.3)	71(78.0)		91(100)
손님접대	82(90.1)	6(6.6)	3(3.3)		91(100)
부부취침		88(96.7)		3(3.3)	91(100)
자녀취침		3(3.3)		88(96.7)	91(100)
손님숙박	18(19.8)	5(5.5)		68(74.7)	91(100)
가사	48(68.1)	21(23.1)	7(7.7)	1(1.1)	91(100)

녀가 안방을 사용하고 부모는 이보다 규모가 작은 자녀방에서 취침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안방 사용자는 부모이다. 이는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안방사용자는 부부인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여¹⁹⁾ 대학생 자녀의 안방 사용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손님취침은 자녀방(1992년 79.7%, 2002년 74.7%)이 가장 많고 이어서 1992년은 안방(12.6%), 거실(7.8%)의 순이나, 2002년은 거실(19.8%), 안방(5.5%)의 순으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손님취침 장소의 변화 즉, 안방에서의 비율감소와 거실에서의 비율증가는 이전에 손님숙박도 가능했던 안방의 기능 축소와 거실의 기능확대로 해석된다.

가사행위(세탁물 정리, 의류 손질, 다림질 등)는 거실(1992년 52.4%, 2002년 68.1%), 다음이 안방 (1992년 34.0%, 2002년 23.1%), 그 외 부엌·식당은 연도에 관계없이 약 8%이며, 다음이 자녀방(1992년 5.8%, 2002년 1.1%)으로 거실에서 가사행위가

18) 이복희, 한지영, 윤재용 (1999),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방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0(3)

19) 주부 연령 40세 이전은 부부의 안방 사용율이 감소하며, 자녀의 사용율(14.9%)이 높아진다. 윤복자, 이지현 (1994),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의 계승과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8), p.9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안방에서의 가사행위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상생활행위는 대부분 거실과 안방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 두 공간에서의 일상생활행위 수용정도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림 1, 2>. 이 두 그림을 비교하면 1992년과 2002년의 거실과 안방의 기능 변화가 명확히 나타난다.

안방에서 다소 이루어지던 손님접대, 손님숙박, 가사행위는 10년 동안에 축소된 반면 부부의 취침이 강화되어 안방은 부부전용공간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²⁰⁾ 시간 경과에 따라 안방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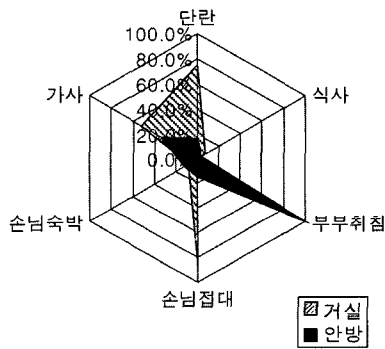


그림 1. 거실과 안방의 일상생활행위(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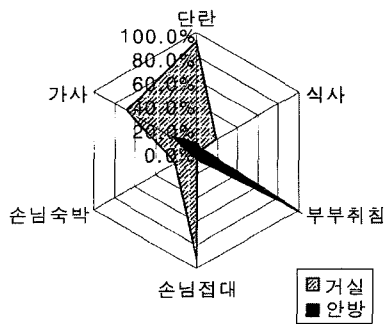


그림 2. 거실과 안방의 일상생활행위(2002)

20) 김정규, 윤장섭, 이광노 (1987), 아파트에 있어서 안방과 거실의 기능과 배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7(2), 김종인 (1995), 주생활에서 본 생활공간의 계획, 대한건축학회지, 16(45), 김수진, 이영수(2000),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에 따른 단위평면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2호, 김진균, 심우갑, 박수빈 (2002), 아파트 공간구성유형에 따른 거주자 공간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1)

은 가족단란, 접객, 가사 등을 담당했던 공간에서 부부취침 및 개인행위의 공간으로 변화되어 복합기능에서 단일기능의 공간으로의 변화가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모든 주택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며 지역과 주택종류 등 변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²¹⁾ 본 조사 결과 대도시 대학생 가정의 안방은 단일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거실은 단란, 접대, 식사, 손님취침, 가사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행위가 이루어져 복합기능의 공간이다. 한편, 이러한 거실기능의 특성은 전통주택의 안방기능과 유사하며,²²⁾ 이에 더하여 사랑방의 기능을 수용한다고²³⁾보는 견해도 있어 현대주거의 거실은 우리의 여러 일상생활행위를 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생활주기 상 자녀진학, 취업, 결혼의 단계는 자녀실의 공동화와 가족의 거실중심의 활동으로 거실의 확장이 발생할 것이므로²⁴⁾ 자녀성년기 가정의 거실은 다양한 생활행위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가정행사공간의 변화

가정행사는 집(자기집, 친척집), 외부시설, 종교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집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행사는 전반적으로 연중행사와 짐들이이며 그 외 행사는 집에서의 비율이 약 20-30%대로 낮은 편이며, 연도에 따라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집에서 행할 경우만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정행사 공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가정행사의 공간은 전반적으로 거실과 안방에서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도 거실의 비율이 높았는데 1992년에 비하여 2002년에는 안방에서의 거행비율이 줄

21)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안방이 공·사 기능이 혼재된 공간이라고 하여 공간사용의 지역차가 나타난다. 김종인 (1995), 주생활에서 본 생활공간의 계획, 대한건축학회지, 16(45), p.24

22) 김미희, 윤복자 (1992), 평면규모 30평형대 및 4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사용방식(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10), p.37

23) 김진균, 심우갑, 박수빈 (2000), 아파트 공간구성유형에 따른 거주자 공간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1), p.58

24) 이보라, 진정 (200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공동주택 평면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1(2), p.10

어들과 거실 중심적인 성격이 보였다. 이 두 공간 이외에 부엌·식당, 자녀방, 마당을 사용한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행사별로 거실과 안방의 사용비율을 보면 1992년의 연중행사는 안방과 거실의 사용비율이 비슷하고 통과 의례와 탄생일은 거실의 비율이 다소 높고, 축하행사와 기타행사는 거실의 비율이 더 높다. 한편 2002년에는 행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거실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축하행사는 거실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연중행사

연중행사는 전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거실로 상당히 이행하였다<표 4>. 1992년에는 거실과 안방에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행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방에서 행하는 비율이 높다. 신정, 구정, 추석은 거실과 안방에서 하는 비율이 비슷하며, 대보름은 거실의 비율이 다소 높고, 부엌·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특히, 제사는 거실(33.3%)보다 안방(66.7%)에서 많이 지내고 있는데 안방에는 전통적 의미가 지속되기 때문에²⁵⁾

표 4. 연중행사 공간의 변화 N(%)

행사	1992년				
	거실(마루)	안방	부엌/식당	자녀방 1, 2, 3	계
신정	19(59.4)	13(40.6)			32(100)
구정	30(53.6)	26(46.4)			56(100)
대보름	35(53.0)	23(34.8)	8(12.1)	없음	66(100)
추석	32(51.6)	30(48.4)			62(100)
제사	17(33.3)	34(66.7)			51(100)
평균	50.18%	47.38%			
행사	2002년				
	거실(마루)	안방	부엌/식당	자녀방 1, 2, 3	계
신정	30(81.1)	7(18.9)			37(100)
구정	29(80.6)	7(19.4)			36(100)
대보름	44(80.0)	6(10.9)	5(9.1)	없음	55(100)
추석	32(78.0)	9(22.0)			41(100)
제사	32(68.1)	15(31.9)			47(100)
평균	50.18%	47.38%			

25) 전통주거에서 의례를 통해 일상 생활공간이 의례공간이 되면서 안방까지 성성(聖性)이 강화되어 오늘날 안방에서 의례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계동, 이영호 (1998), 현대주거에서의 의례관 별 의례행태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5), p. 84

전통적 성격을 지닌 제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풀이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제사는 안방에서 거실로 이행하여 거의 모든 행사가 거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는 과거 전통주거의 마루에서²⁶⁾ 수행되던 기능이 관념적으로 오늘날의 거실로 이어진 점과²⁷⁾ 공간규모가 커서 행사장소로 적합한 (장상옥, 신경주, 2002) 점이 반영되어 가정행사에 거실이 많이 이용된다고 판단된다.

(2) 통과 의례

1992년에는 백일잔치와 돌잔치는 거실과 안방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환갑·고희 행사는 안방에서의 비율이 높았다<표 5>. 그러나 2002년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행사가 거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보인다. 중도시 경우 환갑·고희 행사는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아²⁸⁾ 도시 규모 및 지역에 따른 행사공간 사용의 차이가 있다. 이는 지방도시의 안방은 공·사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이러한 행사가 이루

표 5. 통과 의례 공간의 변화 N(%)

행사	1992년				
	거실(마루)	안방	부엌/식당	자녀방 1, 2, 3	계
백일잔치	20(57.1)	15(42.9)			35(100)
돌잔치	20(57.1)	15(42.9)		없음	35(100)
환갑고희	3(33.3)	5(55.6)	1(11.1)		9(100)
평균	49.2%	47.1%			
행사	2002년				
	거실(마루)	안방	부엌/식당	자녀방 1, 2, 3	계
백일잔치	40(87.0)	6(13.0)			46(100)
돌잔치	30(85.7)	5(14.3)		없음	35(100)
환갑고희	7(70.0)	3(30.0)			10(100)
평균	80.9%	19.1%			

26) 마루는 전통주거에서 여름에는 일상생활의 장소이나, 전반적으로는 가정행사를 위해 예비해 둔 공간이며(김진균, 김우영, 이경훈, 이용석, 2002, 일상과 비일상적 주생활에 따른 전통주거건축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 2, p.116),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기능이 있었다. 김종인 (1990), 마루·대청의 의미와 변용, 한국주거학회지, 창간호, p.28

27) 윤복자, 이지현 (1994),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의 계승과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8), p.10

28) 장상옥, 신경주 (2002), 중도시 거주자의 가정행사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3(6), p.18

어지나 대도시 안방은 사실화(私室化)되어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거실의 면적 규모는 안방보다 대체로 크므로 많은 손님을 접대하는 가정행사에는 거실이 쉽게 이용된다고 유추된다.

(3) 탄생일

탄생일 행사는 <표 6>에서와 같이 거실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1992년은 부모생신은 거실과 안방의 사용비율에 차이가 적으나, 부부와 자녀로 갈수록 그 차이가 컸다. 즉, 젊은 세대는 거실 사용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자녀는 안방에서의 비율은 낮고(13.5%), 부엌·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경우(20.3%)가 다른 세대(약 5%대)에 비하여 높아 세대에 따른 공간사용의 차이가 보인다. 2002년의 행사장소는 1992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거실 중심 경향이 더 강해진 반면 안방의 이용은 감소하였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거실의 사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 축하행사

축하행사는 연도에 상관없이 거실중심적인 경향이 뚜렷하다<표 7>.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의 거실은 안방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교적 인원수가 많은 모임의 경우에는 주로 거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풀이된다. 또한 가족들이 모여서 기념하고 즐기는 축제성이 강한 현대적 성격의 행사는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선행연구와도²⁹⁾ 일치된다.

표 6. 탄생일 공간의 변화 N(%)

행사	1992년				
	거실 (마루)	안방	부엌 /식당	자녀방 1, 2, 3	계
부생신	11(55.0)	8(40.0)	1(5.0)		20(100)
모생신	13(52.0)	11(44.0)	1(4.0)		25(100)
남편생일	62(66.0)	27(28.7)	5(5.3)		94(100)
주부생일	61(67.0)	25(27.5)	5(5.5)		91(100)
자녀생일	47(63.5)	10(13.5)	15(20.3)	2(2.7)	74(100)
평균	57.7%	33.7%			
행사	2002년				
	거실 (마루)	안방	부엌 /식당	자녀방 1, 2, 3	계
부생신	25(83.3)	5(16.7)			30(100)
모생신	25(80.6)	5(16.1)	1(3.2)		31(100)
남편생일	55(82.1)	10(14.9)	2(3.0)	없음	67(100)
주부생일	50(83.3)	6(13.3)	2(3.3)		58(100)
자녀생일	37(88.1)	3(7.1)	2(4.8)		42(100)
평균	83.5%	13.6%			

(5) 기타행사

기타행사는 거실 쪽이 많았는데 어버이날은 2002년이 1992년에 비하여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더 높았고 어버이날은 연도에 상관없이 거실에서의 비율이 일정하였다<표 8>. 한편 서구에서 유입된 행

표 7. 축하행사 공간의 변화 N(%)

행사	1992년				
	거실 (마루)	안방	부엌/식당	자녀방 1, 2, 3	계
결혼기념일	23(79.3)	5(17.2)	1(3.4)		29(100)
자녀입학	8(100.0)				8(100)
자녀졸업	6(75.0)	2(25.0)			8(100)
취직	12(80.0)	2(13.3)	1(6.7)	없음	15(100)
승진	21(80.8)	4(15.4)	1(3.8)		26(100)
퇴직	4(80.0)	1(20.0)			5(100)
상량식	10(90.1)	1(0.9)			11(100)
집들이	54(80.6)	12(17.9)	1(1.5)		67(100)
평균	83.2%	13.7%			
행사	2002년				
	거실 (마루)	안방	부엌/식당	자녀방 1, 2, 3	계
결혼기념일	36(94.7)	2(5.3)			38(100)
자녀입학	7(100.0)			7(100)	
자녀졸업	5(100.0)			5(100)	
취직	14(82.4)	2(11.8)	1(5.9)		17(100)
승진	20(95.2)	1(4.8)			21(100)
퇴직	13(100)				13(100)
상량식	9(81.8)			마당 2(18.1)	11(100)
집들이	55(94.8)	3(5.2)			58(100)
평균	93.6%	3.4%			

표 8. 기타행사 공간의 변화 N(%)

행사	1992년				
	거실 (마루)	안방	부엌 /식당	자녀방 1, 2, 3	계
어버이날	5(71.4)	2(28.6)			7(100)
어버이날	49(64.5)	27(35.5)			76(100)
크리스마스	38(92.7)	3(7.3)			41(100)
평균	81.0%	19%			
행사	2002년				
	거실 (마루)	안방	부엌 /식당	자녀방 1, 2, 3	계
어버이날	8(72.7)	2(18.2)	1(9.1)		11(100)
어버이날	44(78.6)	10(17.9)	2(3.6)		56(100)
크리스마스	23(88.5)	3(11.5)			26(100)
평균	79.9%	15.9%			

29) 김계동, 이영호 (1998), 현대주거에서의 의례관 별 의례행태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5), p.90

사인 크리스마스는 연도에 상관없이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1992년에 비하여 2002년의 경우에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다소 낮았다. 이는 2002년에는 자기 집(1992년 자기 집 41%, 외부시설 59%, 2002년 자기집 29.2%, 외부시설 70.9%)에서 보다 외부시설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비율이 더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정행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주거내 공간은 거실(마루)과 안방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두 공간을 중심으로 행사정도(각 영역별 행사가 이루어지는 비율을 합하여 평균을 구한 값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3, 4>.

전반적으로 거실이 가정행사의 주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가정행사를 수용하는 비율은 거실이 1992년에 비하여 2002년에는 더욱 증가하였고, 안방은 1992년에 비하여 2002년에는 더 감소하여 가정행사는 거실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인다. 거실에서는 연중행사, 통과의례, 탄생일 행사의 비율이 고르게 증가하여 거의 모든 행사가 거실 중심으로 확대되는 반면, 안방에서는 이러한 행사의 비율이 전반적

으로 감소하여 가정행사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판단된다.³⁰⁾ 한편, 일본의 경우는 전통적행사는 좌식의 전통공간에서, 서양적(생활양식 반영)행사는 거실과 침실에서 이루어져 행사의 성격에 따라 사용되는 방의 종류가 다르나(宮崎祐子, 1992), 우리나라 대도시 대학생 자녀 가정에서는 가정행사가 거실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특정 행사를 위해 따로 구분된 공간은 없는 듯 하다. 그러나 전통 주거에서 가정행사를 위해 예비해 둔 청(廳)이라는 공간이(김우영, 이경훈, 이용석, 김진균, 2002), 현대 주거에서 거실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김종인, 1995) 맥락에서 본다면 거실 또한 현대 주거에서 가정행사를 수용하는 특정 공간의 의미를 가진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보면 거실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가정행사도 이루어져 공적인 공간의 성격을 가지며, 안방은 부부의 개인적 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사회변화에 따른 가정생활 내용의 변화와 함께 이에 수반된 공간 변화를 검토하여 앞으로 주택계획 시 고려해야 할 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 1) 자녀 성년기 가정의 일상 생활행위와 가정행사의 많은 부분이 거실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상생활행위 중 가족단란, 손님접대, 가사행위는 거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가족단란행위는 1992년보다 2002년에 더욱 많이 이루어졌고 식사행위도 다소 더 많아졌다. 안방은 부부취침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2002년에는 1992년에 비하여 침대소유의 증가, 일부 단란의 거실로의 이행과 가사감소 등의 경향을 보였다.
- 2) 자녀성년기 가정의 비일상적 생활행위인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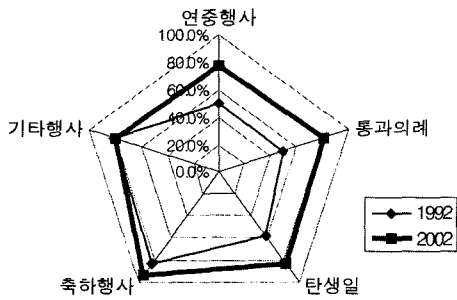


그림 3. 거실의 가정행사정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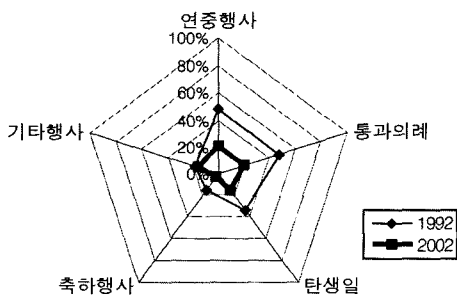


그림 4. 안방의 가정행사 정도 변화

30) 우리나라의 전통주거에서 하나의 방은 취침, 식사, 휴식, 접객 등 생활을 수용하고 상례 시는 문상공간, 의례생활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일상생활의 기본공간이면서 비 일상생활 때도 사용되는 다기능 공간이었다. 김진균, 김우영, 이경훈, 이용석 (2002), 일상과 비일상적 주생활에 따른 전통 주거건축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2), p. 114

행사는 전반적으로 거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변화 경향을 볼 수 있다. 1992년에는 안방에서는 전통적인 행사와 탄생일 등의 행사가 다소 많이 이루어졌고, 세대별로는 부모, 부부세대와 관련된 행사공간이었다. 한편, 거실에서는 축하행사 및 기타행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였고 세대별로는 자녀세대와 관련된 행사가 주로 이루어져 부모세대와 행사공간이 대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여 안방에서 이루어지던 가정행사가 상당 부분 거실로 이행하여 안방의 기능은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축소되었다. 그러므로 현재의 가정행사 공간은 행사의 종류와 성격에 관계없이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이 보였다.

3) 일상생활과 가정행사가 이루어졌던 거실과 안방은 10년 동안 변화가 있어, 안방에서 이루어지던 손님접대, 가족단란 등 공동생활행위와 가정행사가 거실로 이행하여 안방의 기능이 축소된 반면 거실은 여러가지 생활행위를 수용하여 기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공간기능이 변화된 요인은 가구소유 및 공간면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거실에는 소파를, 안방에는 침대를 두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공간의 기능이 명확해지게 되었다. 즉, 안방에 침대를 두면서부터 침실기능이 강화되고 그 결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공동생활행위는 공동공간인 거실로 이행하게 된다. 과거 침대가 없었던 안방에서는 개인생활행위 외에 공동생활행위 등 여러행위를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침대를 두게되면서 안방의 성격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이곳에서의 생활행위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실에는 소파의 소유비율이 증가하여 접대 등 공동생활행위의 지원이 보다 용이해졌고, 일반적으로 거실면적이 안방보다 여유가 있어 가정행사 등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화되었다고 보인다.

앞으로 대도시의 성년기 자녀를 가진 가정의 주거 계획 시는 아래사항을 고려하며, 이는 특히 집합주택에의 도입이 용이하다고 본다.

1) 대도시의 성년기 자녀를 가진 가정의 거실은 일상생활행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정행사를 수용하는 다목적의 복합적 기능을 가진 공간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주생활행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거실 발코니는 제한된 거실면

적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소이므로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차를 없애고 마감재의 재질도 거실과 동일하게 한다. 또 많은 사람이 함께 할 가정행사에 대비하여 거실면적을 넓게 계획하도록 한다. 면적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차선책으로 거실이 넓어 보이게 실내공간을 디자인 하도록 권한다. 방법으로는 같은 면적인 경우 거실의 형태는 정사각형을 피하고 직사각형 공간으로 하며(Sadalla & Oxley, 1984), 밝은 색의 벽지나 천정, 바닥재를 사용하여 방의 체적이 더 크게 느껴지도록 한다(Hayward & Franklin, 1974).

2) 성년기 자녀를 가진 가정의 안방은 취침이 주된 기능으로 부부전용 공간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곳에서 가정행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으로는 이러한 안방의 기능감소를 감안하여 안방 면적의 축소를 제안한다. 한편, 이 공간에서도 침대사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한 공간 디자인 및 면적을 배려한다. 또 안방은 부부의 야간 취침행위가 중요한 기능이므로 평면 계획시 안방의 전면 배치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집안 조용한 위치에 배치시켜서 프라이버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 한다.

참 고 문 헌

1. 김계동·이영호(1998), 현대주거에서의 의뢰관 별 의뢰 형태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5), pp.83-92.
2. 김미희·윤복자(1992), 평면규모 30평형대 및 4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사용방식(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10), pp.26-39.
3. 김수진·이영수(2000),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에 따른 단위평면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2호, pp.102-109.
4. 김정규·윤장섭·이광노(1987), 아파트에 있어서 안방과 거실의 기능과 배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7(2), pp.141-144.
5. 김종인(1972), 주생활에서 본 생활공간의 계획, 대한건축학회지, 16(45), pp.7-14.
6. 김종인(1990), 마루·대청의 의미와 변용, 한국주거학회지, 창간호, pp.27-35.
7. 김종인(1995), 도시공동주거 안방의 이용행태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1) pp.17-25.
8. 김진균·심우갑·박수빈(2001), 아파트 공간구성유형에 따른 거주자 공간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1), pp.53-62.
9. 김진균·김우영·이경훈·이용석(2002), 일상과 비밀 상적 주생활에 따른 전통주거건축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2), pp.111-118.

10. 오혜경·김대년·서귀숙·신화경·최경실(1999), 소설에 나타난 안방의 의미와 용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8호, pp.81-86.
11. 유우상·송중석(1987), 중소규모 아파트의 거실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7(1), pp.167-170.
12. 윤복자·이지현(1994),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의식에 내재된 전통성의 계승과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8), pp.3-15.
13. 윤재웅·이미혜(2002), 도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안방에 대한 인지성향과 공간사용방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1(3), pp. 65-73.
14. 윤정숙·전찬윤·이은경(1990), 한국 도시 주택의 평면구성 형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4), pp. 115-123.
15. 이보라·진 정(200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공동주택평면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21(2), pp.7-10.
16. 이복희·한지영·윤재웅(1999),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방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0(3), pp.185-193.
17. 이유미·임미숙·백혜선(2000), 소형아파트 거주자의 실내공간 이용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2), pp.1-14.
18. 이 훈(1980), 주거평면구성에 따른 공간 활용상태의 고찰, 대한건축학회지, 27(97), pp.8-14.
19. 장상욱·신경주(2002), 중도시 거주자의 가정행사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3(6), pp.11-20.
20. 장창우·진 정(2001), 실태조사를 이용한 아파트 단위평면의 공간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21(2), pp.35-38.
21. 조성희·박수빈(2000), 아파트 단위평면계획의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6(6), pp.11-20.
22. Cheal, David(1988), The Ritualization of Family Ti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31 No.6, pp.632-643.
23. Dickstein, Susan(2002), Family Routines and Ritual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6 No.4, pp.441-444.
24. Fiese, Barbara H., Kline, Christine A.(1993), Development of the Family Ritual Questionnair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6 No.3, pp.290-299.
25. Hayward & Franklin(1974), Perceived Openness-Enclosure of Architectural Space, Environment and Behavior, 6(1), 37-51
26. Omata, Kenzi(1992), Spatial Organization of Activities of Japanese famili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2 pp.259-267.
27. Oseland, Nigel & Donald, Ian(1993), The Evaluation of Space in Hom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 pp.251-261.
28. Oxley & Sadalla(1984), The Perception of Room Size, Environment and Behavior, 16(3), 394-405
29. Wolin, Steven J. & Bennett, Linda A.(1984), Family Rituals, Family Process Vol.23, pp.401-419.
30. 宮崎祐子(1992),日本と韓國の都市住宅における空間構成に関する研究-行事の行われ方を中心に-大阪 市立大學修士論文.